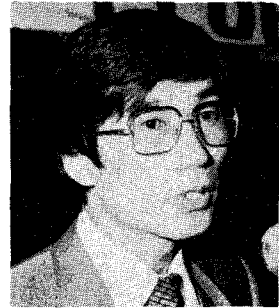


외국의 자본, 기술 도입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태 일

(과학축산 대표)



오늘날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편승하여 불요불급한 외국의 물품이 과다하게 범람하고 있고, 일부 물지각한 사치성에 물든 국민들은 오직 외제만이 상품인양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까지도 외제연필을 사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 여론화까지 되었던 어설픈 시대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제품을 팔려면 우리도 그 나라의 물건을 사줘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몰라서 어린애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 특히 소위 식자층이나 부유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냥 코트라고 나올 때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고 값도 비싸지 않았으나, 값비싼 로얄티를 지불하고 상표를 빌려서 특정한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니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것 없이 길거리의 거의 모든 남자는 특정한 외국상표의 외투를 입고 다니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벡타이, 여자들의 핸드백, 심지어는 스카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한 것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며, 이와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자본, 기술, 상표가 양계업계에

도 자유화 될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업계에 미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말하기 보다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상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겠고 과연 그들이 이 업계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부터 따져보고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지금 단계에서 축산업계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의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목적을 알아보고 그 목적이 과연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부합되며 우리가 바라는 외국의 자본투자 목적과 어떤 점들이 합치 또는 배치 되는가를 알아보자.

투자가가 외국에 투자하는 목적을 대충 알아보면

- 1) 이윤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 2) 힘과 국익의 신장을 위하여
- 3) 현지국이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 4) 관세장벽에 대비하기 위하여
- 5) 해외자원을 개발하거나 제 3 국 시장에 판매를 시도하기 위하여
- 6) 자기의 기계나 원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 7) 자기 제품의 수명 주기를 통해서 꾸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8) 공동시장이나 지역시장에 국제마케팅활동을 위하여

9) 특허권, 상표권의 활용으로 이익을 갖기 위하여

10) 대부분의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을 국내는 물론 해외도 확장하는 것을 원하므로

이상의 목적을 들수 있으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바라는 목적으로는

1) 자본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2) 기술의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3)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4) 투자국이나 투자상사의 명성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5) 고용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등을 들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양계업이나 관련산업에 합치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이유와 시장확보를 위하여 투자하는 상사의 목적과 자본의 부족을 보충하기를 바라는 면에서는 경제원리상 주고받는 목적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양계와 관련된 산업에 외국인의 투자가 필요하도록 자본이 모자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축산업계에서 있었던, 그리고 현존하는 선례들이 충분히 웅변해 주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첨언할 것은 외국의 어떠한 나라도 일차산업과 토지에 관련된 것이라면 외국인의 투자는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 외국의 자본투자와 기술의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기술도입의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자본투자는 바로 기술도입이라는 관계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관련시키지 않기로 한다.

세번째로 경영기법을 배운다는 면에서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매우 도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의 세칭 일류라고 일컫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경영에 임하는 방법과 사고방식 및 행동은 이제 거의 외국의 경영기법이나 현실에 가위 맞먹는다고 할수 있으나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아직 그렇지 못함을 느낀다.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사고적이

며 합리적인 외국의 그것과 모든 것을 인정으로만 처리하려는 축산업계의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많기는하다.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와같은 차이를 구태여 외국의 것의에존하지 않더라도 국내의 연수기관에 의뢰하거나 초빙감사에 의하여 사내교육을 시키더라도 경영자와 직원 모두가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굳이 외국인의 자본투자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비번째로 투자국이나 투자상사의 명성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매우 흥미있고 개발도상국이 계속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방법같이 보이지만, 양계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에서 실재가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지 못하며, 앞으로는 세계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일차산업과 그의 관련분야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실정이다. 물론 각계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이 다소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돈육, 계육, 계란, 사료, 약품,유제품 등의 모든 주변 국가 내지는 잠재시장 국가의 사정은 이를 받아들일 여지와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다섯번째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제창되어 왔던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명목상의 마스코트였던 고용증대 효과는 이제 과당경쟁에 의한 업계와 관련산업 전반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쳐 한 회사만이 아니고 업계전체의 존망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국은 적반하장으



로 이를 불평하는 경우도 산견되는 실정이다.

물론 양계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책임자나 임직원 모두가 업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실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그와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우리가 바라지 않고 투자자가 바라는 많은 사항은 그들의 상업적 목적의 대상이 우리 양계업과 관련되므로 오직 시장만 되어 줄 따름이다.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한가지는 과거 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경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즉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국내 경영인의 자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볼때 필자는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었을 때 양계업과 그의 직접관련산업에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자본도입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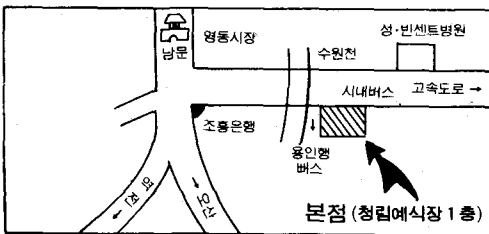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술도입에 관해서 살펴보면 현대사회는 기술의 사회이며 기술의 축적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다.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아지는 앞날을 내다볼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기술의 개발 뿐이라면 우리는 필요한 기술은 어떠한 것이라도 들여와야 할것이다.

현재에도 양계산업 관련업계에서 몇몇업체는 외국의 선진 개발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또 직접 투자에 의한 기술공여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바 도입의 값어치가 있는 기술이 있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바로 들여와 양계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술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것은현실에 맞기 어려운 외국의 것을 비싼 로얄티를 지불하고 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단순한 기술도입 보다는 세제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하여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지형, 기후, 토질 등 모든 것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상이한 일차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수원가축약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립예식장 1층)
☎ (수원 2-2583)



- *축산인의 사랑방*
- *가축질병·시양관리상담*
- *가축약품*
- *축산기구*
- *기타축산관계일체*